상호문화주의에 근거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경험 연구
- 사회적경제공동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상호문화주의에 근거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경험 연구 - 사회적경제공동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주제분류	다문화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질적연구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사회적경제, 지역사회참여
요약문	<p>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사회참여는 가족구성원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는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이나 삶의 만족도와 같은 삶의 질과 관계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참여는 단순히 '적응'이나 '정착'의 단계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이주여성과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상호적 인식, 즉 상호문화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문화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다문화주의와는 달리 상호문화주의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교류와 상호이해를 강조한다.</p> <p>본 연구는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서구의 다양한 이론과 정책적 모델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는 상호문화주의를 소개한 뒤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공동체를 운영하는 세 단체를 선정하여 리더와 주요참여자들을 인터뷰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p> <p>사회적경제공동체에 참여도가 높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첫째,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수용했으며, 그들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더 중시했다. 둘째, 사회적경제공동체 참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만족감과 보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들이 속한 단체 이외의 지역사회의 모임이나 자국민 모임에 대한 참여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넷째, 성공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이주여성들의 노력으로만은 어려웠으며 단체를 대표하고 마케팅 활동을 이끌어갈 선주민 동료가 필요했다.</p>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SA8020604)

I. 서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전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유정균·김두섭, 2017: 44).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는 230만 명에 이른다(법무부, 2018). 이 중 외국인 여성 배우자는 결혼 후 귀화한 국적취득자를 포함하면 25만 명이 훨씬 넘으며 다문화 가구는 32만 가구(전체 2,017만 가구의 1.6%)에 이른다(여성가족부, 2018). 다양한 이유로 낯선 나라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 도전하여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 중에는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힘든 이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과 실천방식으로 한국 다문화사회에 만연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할 장기적 안목의 정책적 대안이 부족하고 선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낮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표방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수준이 단순히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아직도 동화주의적이고 온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선주민들이 이주민들을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어 자발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사회통합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안전하고 안정되고, 공평하면서도 관용적이고, 다양성과 기회균등을 중시하며 모든 사회성원의 참여를 존중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 이주민의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광의적 의미의 이주민 통합은 이주민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화·경제·정치적 참여를 통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일방적인 동화나 수용이 아닌 쌍방향이며 상호적인 과정으로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를 포용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정기선 외, 2011: 3-5). 이와 같이 사회참여란 시민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적 삶에 결합하여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포괄적인 사적 영역에서의 사회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동시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5: 10).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는 정치, 경제, 지역, 학습, 여가, 종교 등 여러 분야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회참여율은 저조한 여전히 상태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가 어려운 주요 장애 요인은 사회지원체계의 미비와 가족관계상의 갈등을 들 수 있다(최현미, 20018: 106).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문화 차이와 편견·차별로 인한 어려움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부족하다(정해숙 외,

2016: 151-160).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여성의 역사와 현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생존이나 적응의 단계를 넘어서 자발적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과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적응’에 초점이 맞춰진 동화주의적인 다문화 정책은 재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상호문화주의에 근거한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배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이한 사회적 관계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참여와 자기실현,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 단계가 된다(이태진·박은영, 2009: 48-56). 또한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사회적 경제공동체’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현 상황에서 상호문화주의는 이주여성이 사회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다문화적 강점을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는 이주여성을 더 이상 사회적 소외자 혹은 시장경제의 약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교류와 이해를 통해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화주의나 온정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차별배제주의적 경향도 남아있다. 건강한 다문화사회는 이주민들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을 때만 실현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주여성의 사회참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논한다. 둘째,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서구의 다양한 이론과 정책적 모델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는 상호문화주의를 소개한 뒤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이슈를 적용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공동체를 운영하는 단체들의 현황과 운영과정, 그리고 이 단체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이주여성의 경험을 소개한다. 넷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II. 문헌고찰

1.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의 중요성

베리(Berry)는 사회참여활동은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주변화 되는 것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기제라고 하며 이민자들의 적응과 사회통합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인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공정한 사회참여 기회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주민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강하면, 이들의 적응형태는 통합되지만 사회참여를 활발히 추구하지 않으면 고립되거나 주변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Berry, 1992: 69-85).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지역사회참여는 가족구성원이 아닌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한편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결

혼이주여성들의 삶의 공간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자조집단의 형성과 지지망의 확대를 체험하는 곳이며, 또한 문화적 차이와 편견으로 인한 갈등의 장이다. 지역사회는 가까이에서는 개인과 가족, 이웃과 공동체, 조직과 단체는 물론 본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곳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는 그들의 자존감,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또는 정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인적자본)이 되어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강화한다(김기홍 외, 2011: 13-15).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삶은 지역을 기반으로 영위되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지역사회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홍봉선 외, 2012: 40-41).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사회에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단계를 넘어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정착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김기홍 외, 2011: 12). 단순히 ‘적응’ 이나 ‘정착’ 의 단계를 넘어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란 이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주자와 이주자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한국사회에도 일정한 변화가 수반된다는 점에 대한 상호적 인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

2. 사회적경제공동체의 중요성

세계적으로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에 관한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다. 국내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¹⁾에서 정부의 주도적 개입으로 인해 왜곡되는 경험을 했으며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경향이 강하다(이은선 · 이현지, 2017: 112-113, 129).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인 Global Social Economy Forum(GSEF) 창립총회는 사회적경제를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 즉 사람중심의 경제” 로 정의하고, 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GSEF; 2014). 즉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소외된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국가주도의 규제적 대안이 아닌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마을기업, 사회벤처 등을 들 수 있다 (최석현 외, 2012; 2-3). 최근 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을 만들기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점(황정미 외, 2009: 36-45)과 UN과 World Bank에서도 기존의 지역공동체 기반의 발전전략(community -based development)에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community-driven development)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김학실, 2014: 180-183) 사

1) 우리나라는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이후 해마다 법 제정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실은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에서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운동이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면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스스로 공동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다문화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활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고자 할 때 관계가 형성되어 성장한다(유창복, 2013: 173-226). 특히 다문화 마을공동체는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적응, 정착, 그리고 참여의 과정이 발생하는 장소인데 다문화마을공동체의 형성과정은 구성원의 사회참여에 관한 모든 종류를 포괄한다(사적 모임, 경제적 참여, 공공서비스 이용, 여가, 종교 활동, 정치 참여 등).

사회적경제 모델의 하나로써 다문화협동조합은 크게 이주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확산과 경제적 자립, 노동통합의 실현, 그리고 다문화 친화적 지역사회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지역사회 공동체가 상호문화주의적 다문화사회를 수용 및 확산하는 시각에서 다문화관련 협동조합은 이주여성이 조합원으로서 자기주도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지역사회가 다문화 친화적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둘째,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이주민 커뮤니티 내에서 여성 지도자 육성이나 자녀들의 진로탐색의 기회가 된다. 셋째, 다문화협동조합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에 적합하다.

3.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상호문화주의로

한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거나 이론을 수용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나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역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김태원, 2012: 198). 다문화관련 이론이나 유형 모델 중 가장 널리 적용되어 연구되는 유형분류는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모형으로 구분되는 유형이다(김선영, 2009: 178-179). 이는 캐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2003)가 여러 나라의 이주민 사회통합에 관한 유형을 분류하면서 외국인에게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차별적 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 model), 동화주의 모델(assimilation model),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세 가지 다문화정책 모형 중 하나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유형들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기 유형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저기술 생산 노동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차별배제 모형을, 고학력 전문직 이민자에게는 동화모형이나 다문화 모형을 적용하기도 한다. 한편 노동이나 사회 정책에는 동화주의를 적용하는 동시에 교육이나 문화부분에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다(김미나, 2009: 198-200; 지중화 외, 2009: 111-112).

이처럼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은 다문화를 경험하는 사회나 국가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 왔다. 그 결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상 혼동

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정부부처는 물론 학계와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매우 상이한 개념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으며 많은 혼선을 겪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다(Abdallah-Preteceille, 2006: 475-477). 지난 10여 년간 유럽과 북미, 그리고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상호문화주의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로 인해 빚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며, 이미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서구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상호문화주의를 논함에 있어 신중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다양한 목적과 사연을 지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선주민과 더불어 건강하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건강한 통합과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향후 더 급격한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이동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배격하고 갈등을 겪느냐, 아니면 건강한 사회통합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정책을 시의 적절하게 수립하여 새로운 다문화 정책을 펼쳐나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국내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통한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절실한 시대적 요구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경제 참여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각 단체의 리더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를 위하여 2017년 연구 수행 당시에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세 단체(표1 참조)를 선정하여 리더의 참여 동의를 구한 뒤, FGI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구성원들을 모집했다. FGI 참여자격은 해당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²⁾으로 한국어로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 방법에 동의한 사람들로 제

2) 연구 참여자 중 M 협동조합과 Y 사회적 협동조합의 리더인 백OO와 권OO은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한국 선주민이다. 본 연구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각 단체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 대상자들을 모집하기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비롯한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했다.

<표 1. 연구 대상 단체>

단체	소개
B 센터 및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중랑구 소재 ◦ 2015-16년 서울다문화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 다양한 출신국 이주여성의 자발적 활동으로 운영됨 ◦ 교육, 통역, 문화 사업
Y 사회적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소재 ◦ 2014년 설립된 다문화사회적 협동조합 ◦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사업에 참여함 ◦ 교육 및 상담 사업
M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안산 소재 ◦ 2014년 설립된 직원협동조합 ◦ 다양한 출신국 이주여성의 자발적 활동으로 운영됨 ◦ 다문화교육사업

연구를 위해 방문했던 기관과 면담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M 협동조합

경기도 A시에 위치한 M 단체는 2014년도 4월에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다문화 교육 기관이다. 현재 8개국 출신의 이주여성이 강사로 참여하며, 문화소개수업, 체험/전시 부스, 지역 나들이, 요리체험, 만들기 체험수업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M 협동조합은 2009년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여성 교육이 이주여성들의 직업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주여성들이 지역학교를 찾아가서 자국문화를 알림으로 해서 A시가 다문화 도시로서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청소년들에게 다문화관련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후 외국인주민센터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그들의 경험과 보람을 살려서 결혼 이주여성들과 선주민들이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서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진 동료들이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표 1: M 사회적 협동조합 연구참여자 정보>

참여자기호	이름	나이	출신국가	한국 체류 기간	역할
A-1	백00	45	한국	-	리더
A-2	마00	37	일본	2년	조합원

다른 조합원들의 참여를 위해 조사에 포함되었다.

참여자기호	이름	나이	출신국가	한국 체류 기간	역할
A-3	전00	35	베트남	13년	조합원
A-4	최000	35	우즈베키스탄	4년 6개월	조합원
A-5	속0000	37	캄보디아	10년	조합원
A-6	최00	67	중국	19년	조합원
A-7	케이코	66	일본	20년	조합원
A-8	김00	38	중국	13년	조합원
A-9	원00	37	베트남	20년	참여자

(2) Y 사회적 협동조합

인천시에 위치한 Y 단체는 2011년에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다문화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Y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계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특히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들을 위한 사회적 의무감으로 뜻을 같이 하고자 사회복지대학원 동문들이 설립했다. 다문화청소년과 결혼 이민자가족 및 일반귀화자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사회적서비스를 지원하고 조합원과 구성원의 복리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자는 취지를 살리며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 분석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했다. Y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교육을 통한 자체적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인천시 P구 지역에 있는 경력단절 이주여성들을 강사로 양성하여 조합 내 강사진을 구축하며, 학교나 지자체 기관에 인성교육, 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사업을 펼친다. 인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의를 나가는 형식으로 활동한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필리핀, 태국, 페루, 중국 등 17개 나라의 이주민 여성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모국의 문화나 생활에 대해 설명한다.

<표 2: Y 사회적 협동조합 연구참여자 정보>

참여자기호	이름	나이	출신국가	한국 체류 기간	역할
B-1	권00	58	한국	-	리더
B-2	라O	41	필리핀	6년	참여자
B-3	김00	37	러시아	10년	참여자
B-4	박00	49	중국	20년	참여자
B-5	원00	29	캄보디아	5년	참여자
B-6	장00	34	베트남	10년	참여자

(3) B센터/협동조합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B센터는 2009년에 이주여성들이 주체가 되고 이주여성들이 직접 투자하여 이중언어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외국인 부모를 자랑스럽

게 여길 수 있고 외국인 부모 역시 떳떳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공생의 장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통역, 다문화교육 교재 제작, 아동 청소년 대상 다문화 교육, 수제공예품 제작 및 판매 등이다. 성공적으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해오던 B 센터는 2016년에 B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표3: B 협동조합 연구참여자 정보〉

참여자기호	이름	나이	출신국가	한국 체류 기간	역할
C-1	안OO	53	중국	15년	리더
C-2	디OO	36	카자흐스탄	8년	조합 이사
C-3	가OO	40	태국	13년	조합 이사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을 실시하기 이전에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을 받았다. 이후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과 FGI는 질적조사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고려사항인 (a)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 (b)충분하게 고지된 동의를 받을 것 (c)사적인 정보와 비밀을 엄격히 보장할 것, 그리고 (d)속이지 말 것(Lincoln and Guba, 1989: 221-240) 등을 준수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항목(표4 참조)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질문하고자 준비한 문항 외에 면접 중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거나 발견된 경우, 질문을 확장시켜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습득했다. 이후 녹취한 자료는 전사과정을 통해 자료로 구축했다.

본 연구를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가 상호문화주의 이론에 근거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경제참여 경험이라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각 기관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도 반구조화된 면접방식(신경림 외, 2004: 102-121)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반구조화 면접 질문 사용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자신의 성향이나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선입관에 간히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주의했으며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더 깊게 듣고자 노력했고 필요에 따라 질문을 추가했다. 또한 내용이 포화가 될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연구 분석과정에서는 본 연구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구했다.

<표4>. 반구조화된 면접질문

	구분	질문항목
단체 설립배경 및 이주여성들의 참여 동기와 경험	단체 형성과정 및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소재지, 회원 수, 사업내용, 규모 등 • 어떻게 해서 모임(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나(자발성) • 주요사업내용 선정 계기
	참여자 특성, 역량 및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회원 수와 적극(조합원), 비적극 회원(비조합원)의 비율 • 조합의 중심 리더자 또는 빅마우스의 특성(지도력) • 회원 간의 상호 배움과 학습에 대한 인식 • 회원들의 개별적 모임 및 사회활동의 경험정도 • 회원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 • 구성원의 다문화적 특성(구성 비율, 역할, 정착기간)
상호문화적 이해와 소통	공동체성, 의사소통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관련된 모임 횟수 및 참여인원 • 의사결정구조(민주적, 개방적, 합의방법 등) • 회원 간의 갈등 및 문제 • 회원 간의 관계(공식적, 비공식) •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전화/ SNS/ 기타), 선호하는 언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상호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차이에 대한 상호 인식과 노력 • 언어차이에 대한 인식과 노력 • 공동체 및 다문화 대한 인식 정도 • 상호문화적 이해와 호혜의 정도
사회적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경험	사회적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정도 • 사회적경제공동체 운영방식에 대한 태도 • 사회적경제공동체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
	참여자의 심리적·경제적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공동체에 참여에 대한 만족도 • 경제적 혜택이 얼마나 분배되었는가? • 회원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역량이 향상되었는가?
지역사회 참여경험	지역사회와의 관계맺음 (지역사회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상호 협력하려고 하는가 • 다른 소수민족 모임과의 연계활동 여부 • 출신국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관계 • 지역의회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인식 정도 • 투표 등 정치참여 경험
조직 운영에 대한 경험과 기대	조직운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 모임에 대한 리더 또는 회원들의 신념과 태도 •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비전 및 계획에 대한 인식차이 여부
	사업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설계 동기와 주체, 지향점 • 회원 간의 사업목적의 합의와 참여정도 • 사업성과 또는 기대치 • 성공의 원인, 실패의 경험
	지속가능성 및 장기적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 모임 비전에 대한 전체 회원들의 합의 정도 • 회원 상호 배움 또는 교육에 대한 계획 • 이주다문화 공동체 등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계획

IV. 연구결과

1. 단체 설립배경 및 이주여성들의 참여 동기와 경험

세 단체의 설립배경을 살펴보면 2013년 설립된 Y 사회적협동조합³⁾은 선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했으나 M 사회적 협동조합(2016년 설립)은 선주민과 이주여성들이 함께 설립했으며, B 협동조합(2016년 설립)은 이주여성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선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이후에 이주여성을 초대한 Y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주여성들도 일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조합의 운영은 주로 선주민들 위주로 하고 있었다.⁴⁾

그분은 못 봐요 한분은 해외에 계시고 또 한분은 활동을 힘드시다고 내가 여기에 잘 안 나오세요. 그렇죠. 나가시기전에 한분이 이스라엘로 나가셨는데 이분이 나가시기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는데 더 큰일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사직은 유지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나가셨어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이라 자기는 여기 이사직은 두고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B-1).

M 사회적 협동조합과 B 협동조합은 모두 2016년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당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여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관계기관의 추천과 자문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비영리로 우리가 활동하니까 우리가 홍보가 공익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협동조합으로 하면 조금 전문성이 있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전에 제가 2016년 상반기 서울시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강사 양성하는데 저 서울시의 제 1호 이주여성 협동조합강사예요... 예 그래서 하니까 어? 좋다 이러면 한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힘을 합치면 정말 우리가 큰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차에 그 X 구 다문화센터에서 이주여성 협동조합 교육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하는 게 사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장소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정말 급하게 등록해야 된다고 마음이 있고, 우리는 또 등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과 지역사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등 사회적 목적 실현사업을 40%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배당금은 금지하고 있다.

4) 2018년 10월 현재 Y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9명)과 운영진(11명)은 모두 선주민들로만 구성되어있다.

룩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도와준다고 하니까 어서 좋다 해야 되겠다. 급하게 막 해가지고 12월 달에 등록을 했어요. (C-1).

그때 서울시에서 와서 교육도 했어요. 우리한테 교육을 몇 회하고 우리가 협동조합센터에 방문해가지고, 그 가서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따로 멘토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떤 거 궁금하고 하면 와서 강의를 해주고 근데 사실 협동조합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다른 사람이 교육을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을 할 때는 알아들었어요. ‘아 네네’ 사인해가지고 나가면 ‘아니야 우리 왜 그런 거 사인하지’ 어? 왜 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를 해서 협동조합이 될지... (C-1).

2. 상호문화적 이해와 소통

지역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출신 배경이 서로 다른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단체가 선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이해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에 참여한 세 단체들은 모두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주로 SNS(카카오톡)를 주 소통창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저희 단체에서 실시간 특방... 변경사항이나 추가되는 사항... 학교 어떻게 연락이 안됐거나... 저희가 분류는 좀 해놨어요. 대화는 순수하게 어떤 생활의 그 사소한 그런 부분들과 스케줄이라고 학교 스케줄이 담긴 그런 부분, 급여적인 부분은 급여방을 통해서... (A-1).

저희 개인사진...(웃음) 사진방 따로 있어요. 어떤 때에는 5명도 있고, 6명도 있고... (A-3)

베트남 분 중에는 페이스북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중국이나 한국, 일본보다... 그래서 저는 되게 페이스북과는... 전 세계 사람을 볼 수 있는 장이잖아요. 근데 참 좋다, 내 학교 친구들, 동창... 이렇게 10년 만에, 5년 만에 보는 사람이 아마 페이스북이 있으면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한국에 오니까 옛날에 같이 학교 다닌 친구들이 한국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좋다고, 재밌다고... (A-3)

회칙은 있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거의 비슷한 시스템처럼 만장일치로 가야... 왜냐면 한 사람이 불만족스러우면 그거는 ‘나 반대의사가 있다’ 그거기 때문에 설득을 하든지 다 시... (A-1)

한 명이면 그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다 그러면 아 문화권이 그렇구나... (A-8).

싸웠다기 보다는 저희는 각 나라 사람에 대한 각 성격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한테 안 맞고 어떤 때는 너한테 안 맞고... 그러니까 서로의 불편? 이런 거니까 많죠, 1년 동안의 내가 불편한 점 그런 것 많지만은 어떤 때는 이야기하면서 서로 울고불고 그럴

때도 많고, 그래도 막 크게 내가 뭐 이렇게 하고 뭐 그 정도는... 딱 봐도 저희 다 착하잖아... (웃음) (A-3).

가장 성공적으로 다문화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M 단체의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개인의 선호에 따른 차이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왜냐면 결혼이주여성들로 저희는 조직의 거의 공통점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이주여성인가라고 부득이 하게... 혹시나 이렇게 찾아본다고 했을 때 나 또한 결혼을 함과 동시에 A시로 이주를 해왔거든요. 나 또한 ‘이주여성이다.’ 라고 당당해 질 수 있는(웃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A-1)

처음에는 원래 다른 거는 회사 갔는데 그쪽에서 사람들 막 계속 인사만하고 다른 건 얘기도 안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 좀 다르니까 그것도 좀 그랬었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엄마들이고, 똑같은 저처럼 외국 사람들이어서 마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A-4).

제가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 직장은... 그러기 때문에 비교할 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사같은 거 있죠? 점심할 때는 일본 사람들 밖에 나가서 먹든가 도시락 이럴 수 있죠. 근데 한국 분들이 여기서 회사 안에서 책보고 그거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은 밖에 나가지만 휴식시간인데 일본 사람들 기본적으로 같이 먹을 때는 반찬도 다 따로 따로 문화기 때문에 ‘그거 내가 먹고 싶은데...’ 그렇지만 다 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 같은 걸(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든지 그런 거 약간 있어요. (A-7).

A4 선생님은 생선 못 먹어요. 해산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중해줘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먹잖아요. 전을 만들면 따로 만들어줘 오징어 안 넣고 따로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 같이 사니까 따로 힘들지만 다 해주면 같이 먹으면 재미있잖아요. (A-9).

그런데 우리는 자기 문화 알고, 한국 문화알고 있는데 계속 우리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수업할 때도 있고, 같이 음식 먹을 때 있고... 이번에 막 베트남 음식 먹으러 가자, 중국음식 먹으러 가자 하니까 서로 문화를 조금씩 알고 있어요. (A-4).

3-1. 사회적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

사회적경제공동체, 즉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이나 정확한 이해를 하는 참여자는 주로 리더들이었고, 일반 참여자 중에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이를 교육시간에 학생들에서 설명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하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제일 처음에 저희 조합원들끼리 인사들

끼리도 되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아니다. 진짜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취합도 되게 많이 했죠.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너희가 왜 할라 그러느냐 그게 제일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센터랑 다르다. 다문화센터라고 하면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 친정 같은 곳이라면, 우리 이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할 수 있다고 설득을 했죠. 그래서 그런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B-1).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처음에는 더 이해를 못했던 거 같아요. 더 처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뭐야? 센터를 가면 이것저것 주는데 여기는 뭘 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받게 익숙해져서 하다못해 김치라도 주던지 뭐 양말이라도 주던지 뭘 줘야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B-1).

(다른데서 일할) 그때는 주로 이제 고용인과 피고용? 이런 느낌이였구요. 여기는 그냥 자발적 모든지 자발적, 뭐든지 알아서 자기가 갖춰야 되구요. 뭐지, 다들 수업이라던가 하는 주인의식을 살려주는 그런 일이 협동조합이구요. 처음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무엇이 협동조합이냐. 나중에 오고 보니까 깜짝 놀랄 ..여긴 모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기는 대표님 이사님 이렇게 직함이 있지만, 모든 선생님이 여기 와서 각자의 주인이에요. 각자 주인의식이에요. 각자 책임 맡은 거는 책임지고 끝까지 다 해야 하는 그런 협동조합이에요. (B4)

학교 가서 아이들 물어본 적이 있어요. 5학년 아이들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소개했어요. 협동조합은 서로 혼자서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묶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장인데 근데 서로 맞춰서 가는 거다. 월급은 같이 나눠 주는 거다. 하지만 다른 회사는 사장이다 그런 거는 없고 우리 기준으로 같이 모여서 하는 회사다. (A-5).

(사회적기업은....) 좀 봉사개념으로 많이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A-7).

너네 진짜 착한 기업이구나. 약간 그 ‘사회적 기업이 돈도 벌지만 착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나라에서 마크를 던져준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나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가장 주된 대상이 학교고... 학교에 갔을 때 그냥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또 다른... 왜냐면 정부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사업을 진행해라 라는 조언은 아주 적죠. 어쨌거나 우리도 같이 뭔가 사회적으로 좋은 소비를 하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착한 순환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긍심도 조금 생겼고요. 또 두 번째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게 내부적으로는 아주 큰.. (A-1).

또한 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을 동의하고 좋아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오래 걸리는 점을 불편해 하기도 했다. 또한 출자금을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거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결정을 하려면) 의견을 많이 해야죠... 의견, 의견... (A-5).

사장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협동이란 게 한국에서는 동업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동업이 사실 조금 더 조직화된 게 협동조합이잖아요. (A-1).

(출자금을) 저는 부담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마음에 조금 찢려서... 왜냐면 처음부터 7명인데요 그때 매달 30만원 월급밖에 안 받아서 그때부터 ‘나 힘든데’ 지금 이만큼 더 벌었어, 그럼 그냥 들어가서 나중에도 똑같으니까 조금 마음이 찢렸어요 그냥 직원한테 하면 나중에 모든지 7명께 다른 사람이 안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A-9).

저는 (출자금에 대해) 깊이 생각 안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었고, 나중에는 잠깐 들었는데 전혀 이해 안 갔어요. ‘뭐지? 뭐 어떻게 하지?’ 이랬고...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막 깊이 생각 안 했으니까...하라고 하면 할 거 같긴 같은데... (A-4).

3-2. 사회적경제공동체 참여를 통한 경제적 · 심리적 만족도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이주여성들의 만족감과 보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더 많은 수익을 바랄 수 있는 일자리보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 하고 있는 교육활동이 그들에게 더 높은 자존감과 보람을 느끼게 했다. 특히 자녀들이 그들의 어머니가 교육자라고 느끼는 데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둘째, 사회적경제공동체의 민주적인 운영방식과 주인의식,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처음에 친구가 소개해줘서 왔는데요. 처음 왔을 때는 그 전에 다른 회사도 다녔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 있으니까 회사 다니기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올 때는 시간도 다른 회사보다 2시간 더 짧게 하고, 돈 조금 더 작게 받지만 가족이랑 더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고, 애기랑 시간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와서 제 마음 다 아는 것 같아요. 똑같이 외국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쉬웠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하는 것 보다 이렇게 하는 거 편하고... 그래서 왔어요 (A-4).

그런데 저는 교육, 아이들한테 교육해주는 게 제일 행복해요 (A-5).

네, 제일 좋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니까 그게 성취감, 보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요. 네, 중국에서 교사였기 때문에 한국 와서 모텔청소, 현장 일 다 하면서 학교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학교다!’ 하고 그랬거든요. 학폰데 아이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지금 그게 이뤄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A-6).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도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근데 꿈이 깨졌어. 지금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강사도 선생님이잖아요. (A-9).

예를 들어 A학교에 가는데 중국 수업을 요청을 했고, 그 반에 예를 들어 X쌤의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부러 더 X쌤을 보내요. 그 반에는... 왜냐면 우리 엄마야, 그런 주변의 친구들이 ‘재네 엄마?’ 그러면서 본인도 봤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친구한테 더 잘해주고, 더 열심히 재밌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일부러 더 아이 반에 갈 수 있도록 배정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캠프할 때도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같이 캠프. 저희 아이도 그렇고... 같이 참여를 해서 조금 더 다문화 관련도 있지만 조금 나의 엄마에 대한 선생님께서도 자긍심도 아이들한테 가게끔 연결을 하려고 해요. (A-1).

제 생각은 많이 직장에 다니잖아요. 큰 회사에 가면 나는 존재감이 없다. 왜냐면 모든지 경쟁하잖아요. 여기는 작지만 다 사람마다 대표님도 우리의견도 다 들어주고 다 공평해서 그리고 시간도 짧고, 저 허리가 많이 아프니까 오랜 시간 못해요. 아 이걸 내 조건에 맞았고, 올해 수료증, 강사 수료증이 있는데 왜 사용안하냐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걸로 쓰고, 적금도 이뤘어요. 지금은 돈 많이 못 받아도 다 만족해요. (A-9).

그리고 또 두 번째 놀라운 거는 봉급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초창기 제일 먼저 왔으니까 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저분은 어떤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이걸 왜 했냐 뭐 할려고 하냐 뒤에 이용하냐 얼마나 주냐 이런식으로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느낀 점 그대로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나 가져가고 얼마나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여기 와서 봉사하려고 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선 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각자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B-4).

한 40, 50, 60(만원)이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저희는 괜찮게 받네 하고 생각했는데 친구들 다 많이 받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진짜 중국에 시골에 있는 친구 연봉이랑 똑같아요(웃음). 그래서 확실히 적긴 적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한 200? 딱 좋겠다. (A-8).

지금 시간으로 보면, 기본으로 생각하면 200(만원)으로 만족하지만은 직업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A-4).

그 돈 보내는 것 보다 많이 활동하니까 많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만 있으니까 하나도 못배우는 거예요. 티비만 보고 책을 봐도 근데 차이가 너무 크고, 활동하면서 너무 좋고 스트레스 풀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가족도 생길 수 있어서 좋고 가족들처럼... (B2).

자유로운 거? 네, 자유가 있고, 내 생각을 할 수 있는거. 제 생각을, 또, 뭐라고 그럴까

요? 키울 수 있고... (C-2).

제 아들은 (엄마가 선생님이라고) 자랑을 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왔다는 거를... 우리 엄마 카자흐스탄에서 왔다고... (C-1).

저는 여기 다니니까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여기서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높고 경력도 만 들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강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강사를 해봤어요.(가르칠 수 있어서) 뿌듯하고요, 일단은 이정도만 해도 뿌듯해요 (B-6).

4. 지역사회참여경험

연구 참여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함께 하게 된 배경에는 단지 자신들의 필요나 이익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나 더 넓은 의미의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봉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어떤 우리도 슬쩍 만들어 보자는... 이 사회에서 도움이 주자... 이 센터에서만 아니고 한국 사회에 좀 나가 보려는... 다른 데는 다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우리 그 밑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나와서 (우리가 직접 해보고 싶다)... 글썄... (한국 사람들에게)... 교육으로 (도움) 줄 수 있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어떤 예술적인 행사도... (한국 사람들에게 봉사)... 해 보려고. (C-2).

참여자들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잘 통하는 출신국모임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거나 정서적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속한 단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비해 그 이외의 교회나 학부모 모임 등 지역사회 모임은 비교적 소극적이었으며 필요에 따라 참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처음에는 다문화센터는 필요하죠. 처음에 와서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도움 필요하고, 지금은 한국말이 좀 괜찮아지고, 지금은 제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소개해주니까 기분이 좋죠. 보람이 느는 거죠 (B-6).

베트남 사람 만나면 주로 여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뭐 홍보... 정보같은 것도 전달받고 전달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임은) 일단은 언어가 (달라요)... (B-6).

다문화센터, 그리고 필리핀 자조모임도 이걸로 했어요. 어제도 크리스마스 파티 했는데, 진짜 너무 즐겁고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를 했기 때문에 진짜 많이 행복하고 진짜 필리핀에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 그것도 조금 즐거워요, 근데 그 불편한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다 말로 못했으니까 ... 왜냐면은 한국말을 백프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단어를 말 못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 네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다른 문화 배울 수 도 있으니까 애들한테 도움도 되고 좋은 기회예요 (B-2).

저는 교회 다문화교회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한국 와서 한국수업을 했어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B-6).

다 교회도 많이 가요.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여긴 매일 매일 만나니까 다르죠. (A-9)

(출신국 협회가) 있긴 있는데 서울에서 있고.. (가까운 곳에는) 없어요. 저는...” (A-3).

저(회) 나라도 (협회가) 있긴 있는데 저는 잘 안 가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가정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면 어떻게 못 듣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봐요. (A-5).

(학부모 모임에) 참여한 적 없어요. 학부모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거 시간이 못 맞아 가지고, 자꾸 강사 수업 들어올 때 마다 다시 전화해서 오늘 못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안했어요. (B-2).

학부모 그룹이 있죠.. (학부모 그룹이) 친하다기보다는 그냥 이 문제... 학교에서 이거 이거 준비한다.. (학부모 그룹) .보러가기는 하는데 우리 일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 안 맞아요. 보통 일이 있을 때... (A-5).

참여자들의 투표 등 정치적 참여에 대한 경험은 개인별로 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참여자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정보의 부족이나 이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 결과 투표결정에 있어서 가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못했어요. ... (방법을) 자세히 몰라서... (C-1).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B-2).

글쎄요. (투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귀찮은 거 말대로 안하면 빠져요? 빠질게 없잖아요. 그럼 제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투표) 안하면 끝이에요. 아무생각 안 들어요. (B-3).

(투표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 찍어요. 내가 얼굴보고 막(웃음)... (A-5).

근데 진짜 교육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한 표 한 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게 안 느껴져요?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투표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나 한 표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없어요.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8).

저는 제 한 표가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투표할 때는 이 한 표를 함으로써 이 사람한테는

유익하겠구나를 생각하면서 해요. (A-4).

저는 티비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토론할 때나 활동하는 거나 티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거.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 생각은 괜찮구나. (A-6).

제가 원하는 분이 투표하고 싶은데, 뭐지 자꾸 남편의견 생각하고 달라서... 그래도 그 왜냐면 사람을 모르니까...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 투표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남편이 이분 아니야 이분 찍으면 안 돼 이분 찍어야 도움이 돼 (B-6).

처음에 왔을 때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동네 사람들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그런 게 되게 싫고 (B-4).

근데 중국하고 투표가 다르잖아요. 중국은 인민 대표잖아요. 대표에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 (그런데) 한국은 (투표할 때) 난리 나잖아요 ... 그렇죠? (그래서 한국투표가) 재밌어요. (투표를 할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B-4).

5. 조직운영에 대한 경험과 기대

조합의 성공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선주민 조합원들이 주가 되어 운영하는 Y 단체를 제외한 M 단체와 B 단체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선주민이 대외업무와 마케팅 등 주요업무를 맡거나 주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민이 리더를 맡고 있는 M 단체의 경우에도 차후에 이주여성들이 대표를 맡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저희가 처음에 대표를 사실 콩고 분을 세워줬어요. 왜냐면 다문화 교육기관인데 저는 취지가 주인공은 한국 사람은 서포터라고 사실 생각했고, 주인공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그랬지만 생각은 그랬거든요. 그게 좀 더 우선 순위였는데 어쩔 수 없이 비자허용이 되지 않았고... 한국인이 들어갔고, 작년부터는 사실 대표는 이제 나는 떨어진다. 이 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은 한국인이면 한 번은 선생님들이 하는 게... (A-1)

(새로운 대표는)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A-3).

(새로운 대표는) 그때 되어야 나올 것 같아요. (A-8)

이와는 반대로 이주여성들만으로 구성된 B 단체는 선주민 조합원이 없는 것을 가장 크게 아쉬워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대외적 활동이나 조합을 소개하고 마케팅 활동을 할 때 단지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한다고 느낀 경험이 많았다. 또한 홍보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토로

했는데 특히 자신들의 영리적인 조합 활동을 잘 설명하지 못해서 선주민들이 B 단체를 봉사단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솔직히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죠. 근데 협동조합은 다르더라고, 우리도 지금 사무국장을 이주여성이 아니라 한국여성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재능기부로 월급을 얼마나주는 프로젝트로 하게 되면 기껏해야 교통비 조금 더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좀 쓰고 싶은데 그렇게 마땅한 분이 지속적으로 한번, 두번 와서 해주지만, 근데 그건 우리 마음하고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 같이 갈 사람이야 이주여성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서로 그거를 오해하진 않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2년 같이 갈수 있으면 좋다는, 적어도 짧아도 1년 정도는 가야되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욕심으로 그냥 우리 힘으로 하자, 우리의 특색은 이주여성 당사자 모임이다. 그걸 계속 내세웠는데... 근데 왜 계속 우리 힘으로 할려고 우리는 늦더라도 천천히 가자 그런 생각으로 이주여성을 몇명 더 키워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작년에 그 현실을 보니까 선주민이 필요하다는 느낌... (C-1).

그거를 친구들이 아 우리가 무시당한 느낌, 아 우리가 보냈으니까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상담해준 게 된 게 있으니까 더욱더 이런 걸 연결을 하니까 점점 더 힘이 빠지지요... 저는 사실 협동조합에는 어쨌든 우리의 수준으로는 표현하는 것도 부족하고, 1년에 시행착오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같이하면 정말 좋겠다... (C-1).

도움이... 한국사람... 해보니까 한국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뭐라 그럴까... 좀 더 많이 아니까. 홍보 쪽으로 한국 사람이 하면 좀 더 믿음감이 생기지 않을까... (C-3).

한편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가진 협동조합의 의사결정구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그로인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웠다고 했다. 이는 협동조합의 운영과 대외사업과 관련된 경험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결여에다가 조직을 이끄는 강력한 리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기존의 비영리단체의 활동과 현재의 조합활동의 차이를 느끼지 못해서 협동조합이 요구하는 준수사항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사람들 밑에서 일을 했을 때는 한국 사람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렇게 명령을 아니고 기획을 주장하는... 우리는 아, 알겠습니다 하고... 여기는 사장님도 없고 우리 서로... 그것 때문에 좀 안됐던 것 같아요 (C-3).

협동조합에 조합원에 우리가 5명이잖아요. 그 외에 자수에 참여한 친구들은 협동조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내가 만든 작품, 상품의 일부분이 왜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해?’, ‘내가 왜 거기에 가입해야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도 하... 이런 진짜 마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C-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통해 사회 참여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주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호문화주의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우선 소개하고 주요 이슈들을 질적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공동체에 참여도가 높은 결혼이주여성들은 모두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수용했으며, 그들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더 중시했다. 이 같은 조직 문화는 상호문화주의가 강조하는 상호이해와 교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자율성과 민주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적합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만족감과 보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더 많은 수익을 바랄 수 있는 일자리보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그들이 속한 단체 이외의 지역사회의 모임이나 자국민 모임에 대한 참여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언어와 문화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으며, 일과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투표 등 정치참여 경험은 개인적으로 달랐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보부족을 토로했다. 넷째, 성공적인 사회적경제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이주여성들의 노력으로만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단체를 대표하고 마케팅 활동을 이끌어갈 선주민 동료의 필요했다. 이는 이주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영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 행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그들의 사업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선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편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운영 단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제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을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이는 이주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도 다르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듯이, 이주여성들이 성공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운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운영방식과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해야만 한다. 이외에 지방자치 단체나 사회적경제 지원 단체들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경제 단체인 만큼 구성원들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초대된 단체들은 모두 교육 문화 사업에 치중되어 있었다. 다문화 관련 교육만으로도 안정적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주민 교육 및 다문화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단

체를 비롯하여 성공적으로 다문화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 단체와의 멘토링 연결이나 유사한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넷째, 이주민들만의 경제적 자립조직이 아닌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와 네트워크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과 정치적 참여가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원해서 그들이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홍·허태영·황명진, 2011,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나, 2009,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행정논총』, 47권 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김선영, 2009,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비교」, 『한국정책연구』, 9권 1호, 경인행정학회.
- 김태원, 2012,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유럽사회문화』 제9호,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 김학실, 2014, 「지역공동체 위기에 대응한 공동체주도발전전략(Community-Driven Development)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권 5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법무부, 2018년 8월, 「2018. 출입국·외국인 통계월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 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현황」,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신경림·고명숙·공병혜·김경선·김미영·김은하·노승옥·노영희·양진향·조명옥, 2004,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중진·정지혜, 201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2013, 36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신지원, 2011, 「이주민 통합과 다층적 통합거버넌스의 개념적 이해」, IOM 이민정책연구원.
- 유정균·김두섭, 2017,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과 변화 추이」,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통계개발원.
- 유창복,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배경과 과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개설에 즈음하여」, 『환경철학』, 15권, 한국환경철학회.
- 이은선·이현지, 2017,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 제도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권 1호, 서울행정학회.
- 이태진·박은영, 2009,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제안」, 보건복지포럼 2009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선·오정은·김환학·최서리·신예진, 2012,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정책 연구」, 행정안전부.
- 정해숙·김이선·이택면·마경희·최윤정·박건표·동제연·황정미·이은아, 2016,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 지중화·정명주·차창훈·김도경, 2009, 「다문화 정책 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권 2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최석현·김관수·이재광, 2012,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이슈와 진단』 73호, 경기개발연구원.
- 최현미, 2008,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정책 모색을 위한 워크숍』,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한국행정연구원, 2015,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한승준, 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권 3호, 한국행정학회.
- 홍보선·이영아·우은정, 2012,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 적응척도 개발」, 『사회과학연구』, 28권 4호, 충남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황정미 · 문경희 · 양혜우 · 정승희, 2009,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Abdallah-Pretceille, M, 2006, “Interculturalism as a paradigm for thinking about diversity” ,
Intercultural Education, Vol. 17, No. 2.

Berry, J., 1992,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 *International Migration*, Vol. 20, No. 1.

Castles, S. and Miller, M. J., 2003, *The Age of Migration*(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Lincoln, Y. S. and Guba, E. G. 1989, “Ethics: The Failure of Positivist Science” ,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Vol. 12, No. 3.

Global Social Economy Forum, 2018, 「GSEF 2014」, http://gsef2014.org/?!lang=ko&act=m1_1 (검색일: 2018.01.06.)

A Study of Married Immigrant Women's Experience of Community Participation based on Interculturalism - focused on Social Economic Community

Kim, Seong Ho
(Korean Bible University)

Subject

multicultural social welfare, social economy, qualitative research.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ism, interculturalism, social economics, community participation.

Summary

For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participation is a process of meeting and interacting with community members on a continuous or regular basis. Community particip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has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adapting to the new environment but also in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in terms of their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t also forms an important social network of the community and strengthens social capital. However, their social participation should be based not on the level of 'adaptation' or 'settlement', but on mutual awareness that respects and accepts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migrant women and their native countries, that is interculturalism. Unlike multiculturalism which emphasizes cultural differences, interculturalism emphasizes mutual understanding and mutual interaction among various cultures based on universality.

This study examines various theories and policy models of the multiculturalism, and introduces the recently discussed interculturalism. Then, this study applies the issue of the migrant women's social participation by conducting and analyzing a qualitative research. This study took deep interviews with leaders of three selecte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major participants of those group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y were communicating in Korean, but they respected and embraced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nd emphasized commonality rather than differences. Second, migr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social economic community activities showed higher satisfaction and reward. They considered working in their group more important than other jobs that could earn more money. Third, it was difficult to operate a successful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solely through the efforts of migrant women. Korean native co-workers who represents their group are necessary for them. This is because migrant women are not accustomed to legal procedures for doing commercial business in Korea, but because of lack of understanding or prejudice by the Korean native people toward immigrant women's business.

접 수 일 : 2019년 4월 4일
심사완료일 : 2019년 4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9년 5월 1일